



# Essential iPad Apps

# 100

아이패드가 마침내 국내 시장에 등장했다. KT를 통해 선보인 아이패드는 사실상 태블릿 시장을 개척한 주역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라이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자못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법. 아이패드를 '마법의 기기'로 만들어주는 것은 다른 아님 애플리케이션의 몫이다. 국내 아이패드 공식 공급사 KT와의 협력과 글로벌 IDG의 콘텐츠를 통해 아이패드용 추천앱 100개를 선정했다.

- ❖ 글로벌 칼럼 | 아이패드는 홈 컴퓨팅의 미래다
- ❖ 아이패드 입문자를 위한 추천 앱 47선
- ❖ 업무용 아이패드 앱 12선
- ❖ KT 선정 Essential 41 iPad Apps

Sponsored by  
olleh kt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본 PDF 문서는 IDG Korea의 프리미엄 회원에게 제공하는 문서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IDG Korea의 허락 없이 PDF 문서를 온라인 사이트 등에 무단 게재, 전재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글로벌 칼럼 | 아이패드는 홈 컴퓨팅의 미래다

Kenneth van Wyk | Computerworld

### Deep Dive

**결** 론부터 말해보자. 필자는 아이패드를 통해 홈 컴퓨팅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손에 넣었다. 초기 리뷰들은 찬양 일색이었다. 아이패드 하드웨어,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다.

아이패드를 손에 넣자마자 몇 가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대부분은 엔터테인먼트용(Netflix, ABC Reader 등)이었지만, 업무용 애플리케이션도 몇 가지 설치했다. 페이지(Pages), 키노트(Keynote)이 그것이다.

설치는 간편했다.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필요한 도구를 찾고, 구입 아이콘을 클릭하고 패키지를 설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잠깐이다.

설치하면서 보니 설치 위치는 선택할 수 없다. 사실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할 때 예/아니요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사용자가 무언가를 선택할 기회는 없다.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후 맥북 프로와의 아이튠스 동기화를 통해 키노트(Keynote) 프리젠테이션과 페이지(Pages) 문서를 아이패드로 불러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문서를 아이패드의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장치를 동기화한 후 문서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표시됐다.

필자가 아는 대부분의 전자 제품 마니아들에게 '선택권의 부재'는 결정적인 단점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비자 대부분은 '선택권의 부재'를 '간편함'으로 받아들인다. 대중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 간편함은 단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안 측면에서 생각해볼 점은 무엇일

까? 첫째, 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는 직접적으로 아이패드의 파일 시스템 접근할 수 없다.

즉, 아이패드의 잠긴 문을 열고 그 기반이 되는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방법은 있긴 하지만, 특정한 의도를 가진 맬웨어가 아닌 한 일반 소비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애플리케이션들 자체도 기본적으로 상호 격리된다. 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없다. 애플리케이션 저장 위치 역시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는 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덮어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물론 격리와 구역화만으로 맬웨어가 완전히 차단되리라고 믿는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이러한 보호 기능이 깨질 것이라는 점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만큼이나 명백하다. 누군가는 악성 데이터를 침투시켜 보안 아키텍처에 사용자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힐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애플은 애플리케이션 심사 과정에서 적절한 코드 심사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 역시 소비자 관점에서 유익한 부분이다.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사전 심사와 서명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즉, 앱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애플의 코딩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서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애플의 플래시 콘텐츠 배제 정책이다. 이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플래시 배제는 시스템에서 무엇을 실행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플랫폼 측의 통제 부담을 덜어준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아이패드에서도 플래시를 배제하는 데 있어 하나의 동기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세상에는 악성 플래시 콘텐츠



를 미끼로 사용하는 맬웨어들이 바글바글하다. 필자는 내 장치에서 플래시가 배제된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기뻐하는 아이패드 소비자 중의 한 명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가 바로 일상적인 홈 컴퓨팅 작업을 위한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고도로 실용적인 플랫폼인 것이다.

사진 보기, 음악 듣기, 영화 보기와 같은 일상적 작업들은 정말 간편하다. 새로 입양한 바셋 하운드 강아지를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을 아이패드로 옮겨 봤는데, 이러한 사진들을 친구와 가족에게 보여주는 수단으로 아이패드보다 더 완벽한 플랫폼은 없다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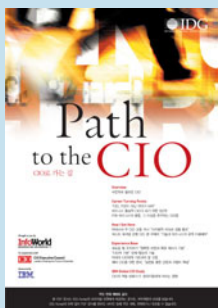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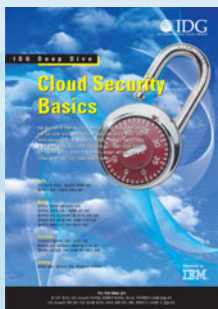
또한 필자는 평균적인 전자 제품 소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의 기본 구조와 아키텍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은 아무 문제 없이 매끄럽게 실행됐다. 아이패드는 분명 전세계의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선물이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다.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맥이든 윈도우 PC든 동기화할 컴퓨터가 필요하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아이패드는 옳은 방향을 향한 큰 진전이다. 필자는 애플이 아이패드를 통해 선보인 모델이 홈 컴퓨팅의 미래라고 확신한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손에 아이패드가 들어갔으니, 앞으로 몇 년 동안 아이패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생각만 해도 흥분된다.

보안 측면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옳은지 여부는 시간이 밝혀주겠지만 필자는 다른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맬웨어, 바이러스 등의 문제가 아이패드 모델에서는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IDGK**

※케니스 반 익은 정보 보안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카네기 멜론 대학의 CERT/CC, 미국방성, 파라프로젝트 등에서 근무했다. 정보 보안에 대해 두 권의 책을 펴냈고 현재 세 권째를 집필 중이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소재한 KRWW 어소시에이츠 LLC의 사장이자 수석 컨설턴트다.



## IT 트렌드 종합 정보센터 IDG Tech Library

IDG Tech Library는 IDG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전문 정보를 재구성하여 최신 기술의 기본 개념부터 현황, 전략 및 도입 가이드까지 다양한 프리미엄 IT 정보를 제공합니다. Computer World, Info World, CIO, Network World 등의 세계적 IT 유명 매체의 심도 깊은 정보를 무료로 만나보세요

IDG Deep Dive, Tech Focus, Summary, World Update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IDG(주)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108번지 창화빌딩 4층 100-161 Tel : 02-558-6950 Fax : 02-558-6955  
www.idg.co.kr twitter.com/idgkr www.facebook.com/IDGKorea

# 아이패드 입문자를 위한 추천 앱 47선

Network World Staff | Network World

## Deep Dive

**선** 물로 아이패드를 받았든 새로 아이패드를 구입할 예정이든 이미 구입했던 아이패드를 손에 넣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여기에 무엇을 설치할까?” 일 것이다. 수많은 앱 중에서 스티브 잡스의 말대로 아이패드를 마법같은 기기로 만들어줄 앱을 고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IDG 엔터프라이즈 편집진이 신규 구입자를 위한 필수 아이패드 앱 47가지를 골랐다. 지난 7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아이패드 앱을 질리도록 시험한 끝에 선정한 이 47가지 앱은 새로 구입한 아이패드를 즐겁게 사용하기 위한 동반자가 되리라 확신한다. 참고로 여기 나온 가격은 2010년 11월 4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다. 앱의 가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1. 판도라 라디오(Pandora Radio)** 아이패드용 필수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다. 앱을 통해 판도라 계정에 접속하고 원하는 방송국을 스트리밍할 수 있으며,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판도라가 선정한 방송국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가격 : 무료



**2. 아마존 킨들(Amazon Kindle)** 애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아이북스(iBooks)도 좋지만 아마존의 킨들 앱에 책이 더 많다. 가격 : 무료



**3. 넷플릭스(Netflix)** 아직 넷플릭스 계정이 없다면 지금 바로 만들어서 아이패드를 통해 인스턴트 큐에 접속해 보자. 넷플릭스에서 다양한 TV 프로그램 및 영화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가격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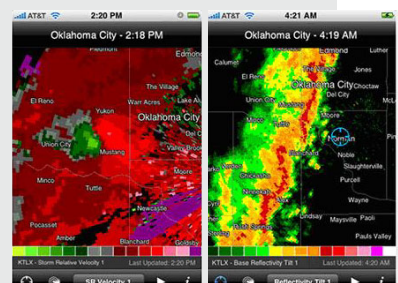
**4. 리모트(Remote)** 애플TV가 있다면 필수다. 이 앱을 사용하면 아이패드가 애플TV 리모콘이 된다. 컴퓨터에 설치된 아이튠즈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무료



**5. AOL AIM** 컴퓨터에서 AOL 인스턴트 메신저를 주로 사용한다면 이동용 메신저로 똑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앱이 마음에 들 것이다. 친구 목록, 상대 업데이트 기능이 있고 페이스북 친구와 통합 기능도 제공한다. 가격 : 무료



**6. 웨더 채널(Weather Channel)** 날씨가 궁금하다면 이 앱을 설치하면 된다. 사용자 GPS를 읽거나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한 위치를 기반으로 날씨 예보, 기상 레이더, 태풍 정보 등을 제공한다. 가격 : 무료



**7. 레이더스코프(RadarScope)** 단순한 날씨 예보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앱은 훨씬 더 세부적



인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이 앱은 넥스래드(NEX-RAD) 레벨 3 레이더를 원래의 방사 형식 그대로 보여준다. 또한 국립 기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악천후 경보(토네이도, 뇌우, 돌발 홍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가격 : 9.99달러

**8. 플립보드(FlipBoard)** 플립보드는 신문의 미래상 일지도 모른다. 소셜 미디어 계정과 뉴스 피드를 전통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즉, 기사들이 신문 모양으로 배치되며, 신문이나 잡지를 읽듯 페이지를 넘기는 방식이다. 가격 : 무료



**9. 미티어 블리츠(Meteor Blitz)** 80년대 초반 인기 아케이드 게임 애스터로이드의 21세기 업데이트판이라고 할 만한 우주 슈팅 게임이다. 훌륭한 그래픽과 사운드 효과, 다양한 방어 무기를 자랑하며 게이머라면 반드시 구입할 만한 게임이다. 가격 : 2.99달러



**10. 아이패드용 스타 워크(Star Walk for iPad)** 이 앱을 사용하면 아이패드는 손바닥 위의 천문관이 된다.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겐 완벽한 앱이며, 아이패드의 내장 디지털 나침반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현재 사용자의 머리 위에 있는 별자리에 대해 알려준다. 멋진 그래픽으로 항성, 행성부터 거대한 성운에 이르기까지 9,000개 이상의 천체를 볼 수 있다. 가격 : 4.99달러

**11. USA 투데이** 신문을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혁신적인 방식을 볼 수 있다. USA 투데이는 신문의 모든 면을 읽기 쉬운 형태로 제공한다. 매일 나오는 십자말 풀이도 잊지 말고 즐기자. 가격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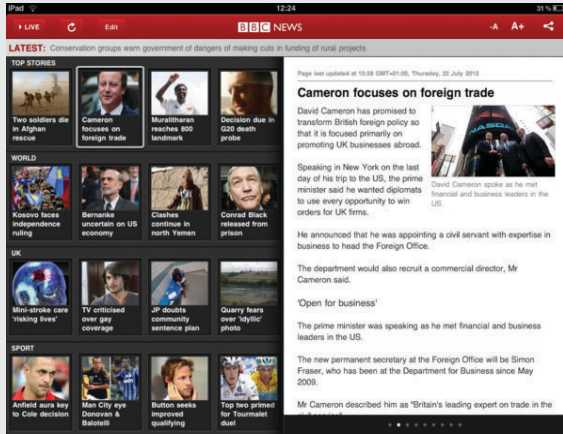


**12. 파이낸셜 타임즈 아이패드판** USA 투데이가 본인의 취향에 너무 화사하거나 가볍게 느껴진다면 좀더 진중한 파이낸셜 타임즈 아이패드 앱이 마음에 들 것이다. 전세계의 비즈니스, 뉴스, 라이프스타일 기사를 제공하며 비디오 섹션도 있다. 가격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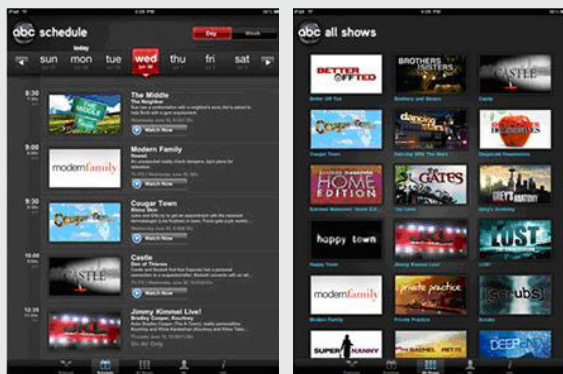




**13. BBC 뉴스** BBC 뉴스 아이패드 앱은 BBC와 글로벌 저널리스트 네트워크가 전달하는 최신 뉴스를 제공한다. BBC 통신원의 기사와 비디오도 볼 수 있다. 가격 : 무료



**14. ABC 플레이어** 아이패드용으로 가장 먼저 등장했고 여전히 가장 우수한 비디오 플레이어 중 하나다. 이 앱으로 아이패드에서 ABC 프로그램을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편성표도 있고, 감상 기록 기능은 사용자가 시청을 멈춘 부분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 부분부터 다시 보여준다. 가격 : 무료



**15. 피아니스트 프로(Pianist Pro)** 아이패드를 가장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앱 중 하나다. 아이패드의 모양을 앱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피아니스트 프로에는 한 번에 11개의 키가 표시되는 총 88키의 피아노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아노 외에 신디사이저와 같은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기능과 녹음 기능을 제공한다. 피아노 연주 방법을 배우려는 사용자는 이 앱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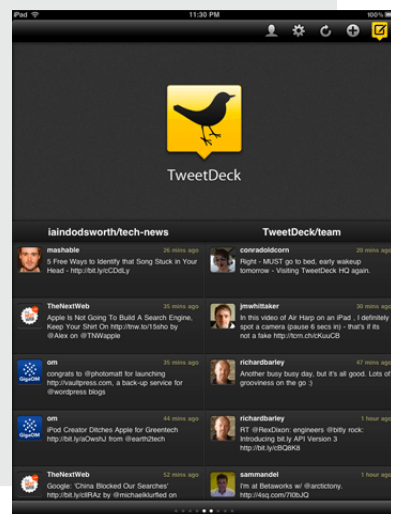
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연습할 수 있다. 물론 헤드폰을 착용할 때의 이야기다. 가격 : 9.99달러

**16. EW 머스트리스트 (EW MustList)** 잡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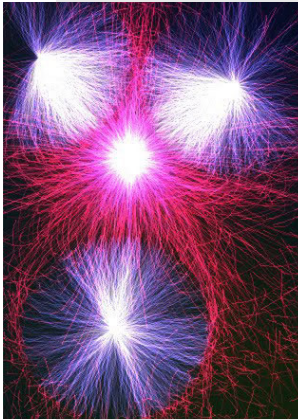


아이패드용으로 멋지게 개작한 예다. EW 머스트리스트 앱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EW)에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하여 매주 꼭 보거나 해야 할 일 10가지를 선정해서 보여준다. 또한 독자에게 다양한 기사와 비디오를 전달하고 EW 편집자들이 논하는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매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화두를 따라잡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다. 가격 : 무료

**17. 트윗덱(Tweet-Deck)** 트위터 중독자라면 아



이패드용 트윗덱으로 트위터에 대한 허기를 달래보자.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여러 트위터 피드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넣을 수 있다. 컴퓨터에서 이미 트윗덱을 사용 중이라면 모양과 느낌이 친숙할 것이다. 가격 : 무료



**18. 테슬러 토이(Tesla Toy)** 시간 죽이기(또는 낭비)용으로 그만이다. 아이패드의 터치 스크린을 활용해서 멋진 그래픽을 만들어 보자. 손가락으로 화면을 건드리면 “전기장”이 생성된다.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유리컵 장난감과 흡사한 효과를 낸다. 아주 멋지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한다! 가격 : 무료

**19. 아이패드용 슈퍼 와이!(Super Why! For iPad)** PBS의 슈퍼 와이! TV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네 가지 대화형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게임에는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네 명의 캐릭터와 읽기, 각운, 알파벳, 철자 학습 내용이 모두 나온다. 각 게임을 끝내면 특별 스티커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 스티커로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가격 : 3.99



**20. 아이브라이트(iBrite)** 70~80년대의 라이트 브라이트(Lite Brite) 장난감을 가장 잘 현대화한 앱



이다. 아이브라이트에서는 다양한 펙(peg) 색을 선택하고 화면의 구멍들 위로 손가락을 움직여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저장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림을 그린 다음 펙을 치울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좋다. 가격 : 1.99달러

**21. 마블 코믹스와 DC 코믹스(Marvel Comics, DC Comics)** 만화책을 좋아한다면 이 두 출판사의 앱을 받아보자. 예전에 발행된 만화책을 구입해서 화사한 아이패드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다. 화면 확대도 가능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도 많다. 대부분의 만화책이 예전에 나온 것들이므로 새로 발행된 만화책을 사려면 여전히 직접 서점에 가야 하지만 과거에 못 보고 넘어간 만화책을 찾아서 보는 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다. 가격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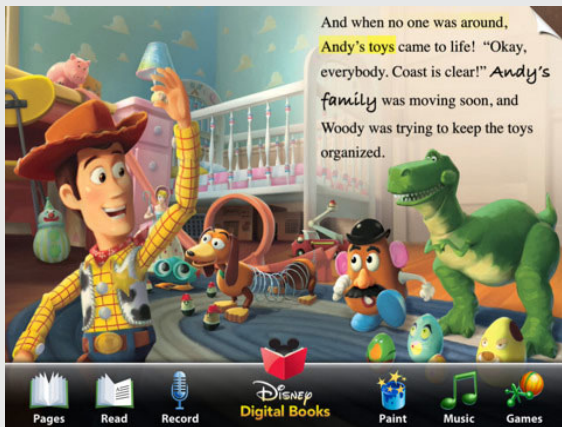


**22. 핀볼 HD(Pinball HD)** 아이패드의 크기와 그래픽을 적절히 활용한 게임이다. 세 가지 핀볼 머신을 즐길 수 있고 움직임, 3D인 듯한 효과, 사실성 모두 뛰어나다. 플리퍼 영역을 두드려서 공을 테이블 위로 쏘아올린다. 흔들기와 부딪치기 기능도 있지만 너무 심하게 하면 반칙으로 처리되니 주의할 것. 가격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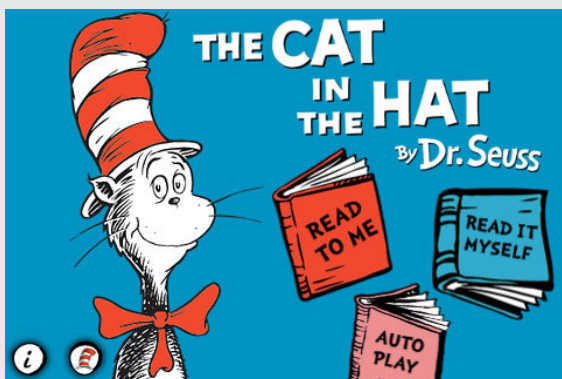




**23. 토이 스토리 함께 읽기 책(Toy Story Read-Along books 1, 2, 3)** 대화형 책으로 각각의 토이 스토리 영화를 원작의 음성이 나오는 책 형태로 볼 수 있다. 앱에서 책을 읽어주도록 하거나, 이 기능을 끄고 아이에게 직접 읽도록 할 수도 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색칠하기 등의 다른 게임과 뮤직 비디오 등이 나온다. 가격 : 무료, 3.99달러, 8.99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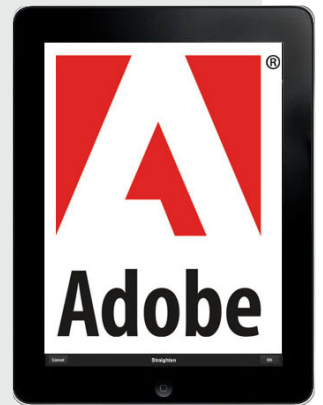
**24. 캣 인 더 햇(The Cat in the Hat)** 유명한 수스 박사 이야기가 대화형 책 형식으로 나왔다. 나레이션, 배경 음악, 큼직한 삽화가 들어가 있다. 읽어 나가면서 각 해당 단어가 강조해서 표시되고, 아이가 단어를 두드리면 발음을 들을 수 있다. 가격 : 3.99달러



**25. 어도비 포토샵 익스프레스** 아이패드에서 사진을 많이 넣어두는 사용자라면 이 앱으로 쉽고 빠르게 기본적인 편집을 할 수 있다. 자르기, 정렬하기, 회전 및 뒤집기와 사진의 색 노출, 대비 및 채도 변경 기능을 제공한다. 재미난 효과와 테두리 추가 기능

도 있다. 조작이 쉽고,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필수 앱이다. 가격 : 무료

**26. 풀프로 온라인 3(PoolPro Online 3)** 실제 당구를 좋아한다면 아이패드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게임 종류는 8볼, 9볼, 스누커이며, 컴퓨터가 조작하는 상대방에게 다양한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다. 큐대를 조작하는 방법은 쉽게 익힐 수 있고, 힘을 조절하거나 틀어치기도 가능하다. 멀티플레이어 옵션을 통해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당구 실력을 겨룰 수 있다. 가격 : 2.99달러



**27. 123 컬러 HD 말하기 색칠하기 책(123 Color HD Talking Coloring Book)**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색칠 책 애플리케이션이다. 아이가 직접 색을 골라서 칠하거나 숫자(또는 문자) 가이드에 따라 칠할 수 있다. 색과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면 해당 영역이 칠해진다. 그리기를 다 마치면 음악이 나오면서 그림이 완성되었음을 알려준다. 가격 : 1.99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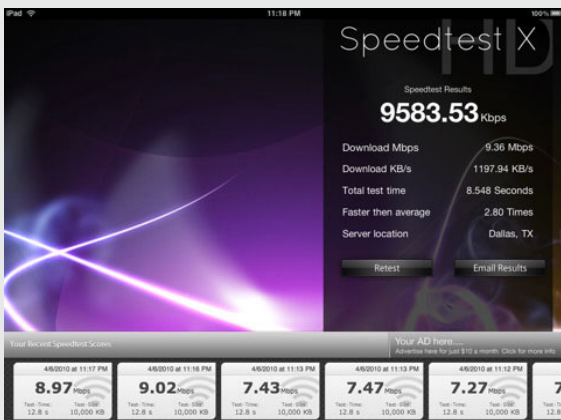


**28. 샘과 맥스 에피소드 1: 아이패드용 페널 존(Sam and Max Episode 1: The Penal Zone for iPad)** PC용으로 나온 텔테일 게임의 샘과 맥스 어드벤처 게임을 즐긴 적이 있거나 80~90년대 클래식 루카스아츠 게임을 기억하는 사람을 위한 앱이다. 뼈막한 유머 감각, 다양한 어드벤처 퍼즐과 함께 샘과 맥스가 다시 돌아왔다. 멋진 게임이고 아이패드에서 잘 최적화됐다. 가격 : 4.99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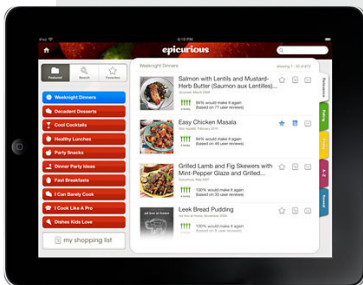




**29. 스피드테스트X HD(SpeedtestX HD)** 네트워크 속도에 집착한다면 이 앱으로 와이파이 또는 3G의 연결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원할 때 언제든지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고, 상태가 보관되므로 인터넷 접속 속도가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가격 : 무료



**30. 에피큐리어스(Epicurious)** 매일 같은 음식을 먹기가 지겹다면 Epicurious.com에서 제공하는 2만 8,000개 이상의 요리법을 살펴보자. 음식 유형별로 요리법을 탐색하거나 재료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리뷰를 읽고 원하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요리법을 보내는 기능도 있다. 요리법의 단계별 안내를 따라 하다보면 이내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가격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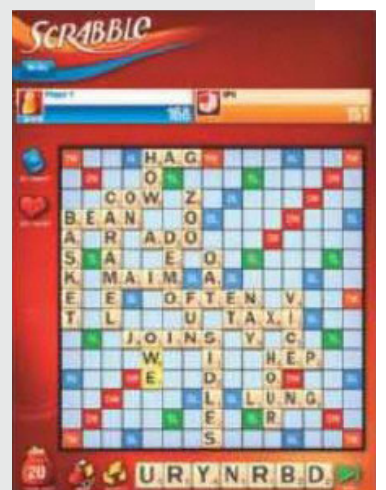
**31. 레지던트 이블 4(Resident Evil 4) : 아이패드 에디션** 레지던트 이블 4는 역대 최고의 콘솔 게임 중 하나로 꼽힌다. 아이패드 에디션은 스틱 대신 온스크린 컨트롤을 사용한다. 이 게임은 아이폰의 불편한 가상 컨트롤에 비해 아이패드의 넓은 화면을 활용한 큼직한 컨트롤이 얼마나 더 편리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게임 자체도 훌륭하다. 가격 : 6.99달러



**32. 아이패드용 지오메트리 워즈: 터치(Geometry Wars : Touch for iPad)** 지오메트리 워즈는 최고의 엑스박스 라이브 게임 중 하나다. 우주를 배경으로 도형을 쏘는 복고풍의 슈팅 게임이며 아스테로이드(Asteroid)와 약간 비슷하다. 화려한 시각 효과는 아이패드 LED 디스플레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가격 : 9.99달러



**33. 아이패드용 스크래블(Scrabble for iPad)** 1인 모드는 여전히 짜증스럽고 인공 지능도 형편없지만 멀티 플레이어 모드는 아이패드의 넓은 화면과 최적의 조합을 이룬다. 게다가 무료 아이폰 앱도 함께 제공되는데, 이 앱을 가상 타일 홀더로 사용하면서 보드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보드를 흉내내는 것치고는 비싸지만 독창성은 높이 살 만하다. 가격 : 4.99달러





**34. 플라이트 컨트롤 HD(Flight Control HD)** 게임 방식은 단순하다. 비행기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 안전하게 활주로로 안내하면 된다. 잘 만들어진 퍼즐이 모두 그렇듯이 이 게임도 비행기가 늘어남에 따라 중독성도 강해진다. 아이패드 에디션은 멀티 터치를 활용해서 여러 대의 비행기를 동시에 조작할 수 있다. 한 번 실패하면 그대로 게임이 종료되므로 긴장감이 상당하다. 가격 : 4.99달러

**35. 리얼 레이싱 HD(Real Racing HD)** 해상도만 약간 더 높을 뿐 아이폰과 똑같은 게임에 6 파운드를 지불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리얼 레이싱이 최고의 아이폰 게임 중 하나이며, 큰 아이패드 화면에서 더욱 멋지게 보인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렵다. 시스템을 불문하고 가장 잘 만들어진 레이싱 게임 중 하나다. 가격 : 9.99달러



를 지불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리얼 레이싱이 최고의 아이폰 게임 중 하나이며, 큰 아이패드 화면에서 더욱 멋지게 보인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렵다. 시스템을 불문하고 가장 잘 만들어진 레이싱 게임 중 하나다. 가격 : 9.99달러

**36. 앵그리 버즈 HD(Angry Birds HD)** 게임 방식은 간단하다. 투석기로 새를 쏘서 녹색 돼지들을 무찌르면 된다. 앵그리 버즈는 아이패드의 터치스크린을 잘 활용한 최상급 퍼즐 게임이며, 재미있는 그래픽 효과와 손쉬운 조작이 장점인, 아이패드 플랫폼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이폰 버전과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강하고 그래픽은 아이폰에서 볼 때보다 더욱 화려하다. 가격 : 4.99달러



**37. 코르크 아이일렉트라이브(Korg iElectribe)** 댄스 음악을 좋아한다면 아마 코르크 일렉트라이브를 들어왔을 것이다. 이 박스는 신디사이저(합성) 음악

과 드럼 머신 기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특유의 댄스 사운드를 만들어준다. 코르크 아이일렉트라이브는 이 유명한 박스를 각종 다 이얼을 포함해 아이패드용으로 재현한 앱이다. 아이패드의 멀티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자유자재로 조작하며 완벽한 댄스 음악을 추구해 보자. 가격 : 19.99달러



**38. 매직 피아노(Magic Piano)** 꼭 집어 정의하기 어려운 애플리케이션이 종종 있는데, 매직 피아노도 그런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다. 이 앱에서는 화면을 두드려서 피아노 음악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전통적인 키보드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독특한 모드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낙하하는 빛나는 점을 두드려서 연주하기, 원형 키보드로 연주하기 등이 있다. 가격 : 1.99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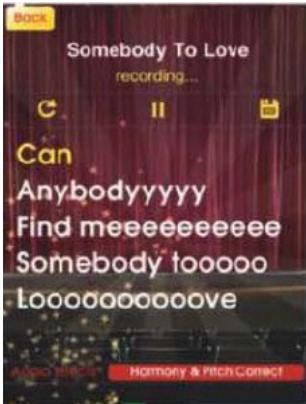


**39. 아이패드용 샤잠(Shazam for iPad)** 샤잠은 음악을 듣고 곡명을 알아내는 재미있는 앱이다. 처음에는 파티에 사용할 재미를 위한 앱으로 개발되었지만 이후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태그를 달고 음악 정보를 공유하며 추천 음악과 순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악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8백만 개의 곡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샤잠은 새 음악을 찾기에 그만인 곳이다. 가격 : 무료



**40. 글리(Glee)**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글리는 호불호가 절반으로 갈리는 미국의 뮤지컬 코미디 드라마다. 이 앱은 가라오케 기능에 음치가 부르는 곡도 그럴 듯하게 바꿔주는 기술적인 조작을





합쳤다. 노래를 부르면 목소리를 다듬고 화음 효과도 넣어준다. 자신이 부른 노래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할 수도 있다. 가격 : 0.99달러

**41. 베이비 데크 DJ(Baby Decks DJ)** 믹싱 데크를 아이패드로 옮겨온다는 기발한 발상의 앱이다. 베이비 데크 DJ를 통해 아이패드 터치스크린은 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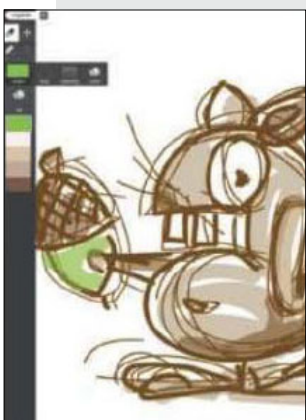
의 데크, 크로스 페이더, 피치 컨트롤, 그리고 트랜스포머 조절 바로 변신한다. 믹싱을 연습하기에 좋은 앱이다. 유일한 단점은 아이튠즈 라이브러리의 음악에 접속하는 기능이

없어 이 앱에 곡을 업로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 : 24.99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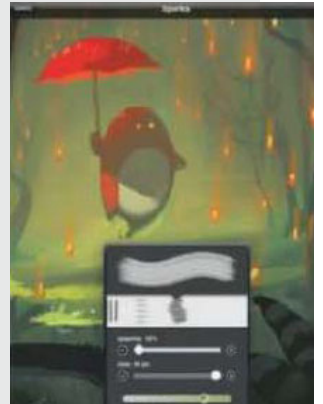
**42. 스케치북 프로(Sketch-Book Pro)** 오토데스크의 스케치북 프로는 아이패드용으로 나온 최고의 페인팅/드로잉 앱이다. 아이패드는 자유로운 스케치에 적합하지만 스케치북 프로의 강점은 데스크톱 버전과 똑같은 엔진을 사용하며 레이아웃과 여러 단계의 작업 취소(undo)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가격 : 0.99달러

**43. 어도비 아이디어스(Adobe Ideas)** 어도비 아이디어스는 손 스케치를 부드러운 선으로 다듬어주는 무료 스케치북 앱이다. 구불구불한 부분을 자동으로 펴서 전체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준다. 순수 드로잉 측면



에서 브러쉬즈(Brushes)나 스케치북 프로만큼은 좋지 않지만 아이디어를 멋지게 스케치하는 용도로는 훌륭하다. 가격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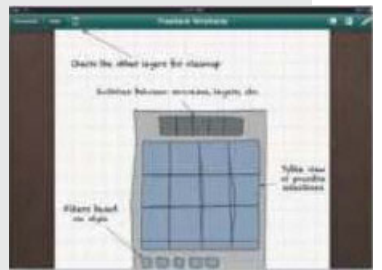
**44. 브러쉬즈(Brushes)** 초보 아티스트를 위한 앱이다. 아트 스튜디오나 스케치북 프로만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아이패드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앱이며, 사진 위에 스케치하는 용도로 적합하다. 디지털 드로잉을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훌륭한 앱이다. 가격 : 7.99달러



**45. 아이패드용 포토진(Photogene for iPad)** 이미지를 최대한 원하는 용도에 맞게 편집하기 위한 앱은 여러 가지가 있다. 데스크톱용 포토샵에 필적하는 앱은 없지만 포토진과 같은 앱은 크롭, 샤프, 색 조절 및 특수 효과와 같은 여러 전문적인 편집 도구를 제공한다. 가격 : 3.99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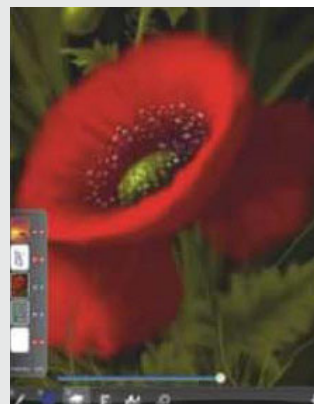


**46. 옴니그래플(OmniGraffle)** 가격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관심을 끌 만한 앱이다. 옴니그래플은 흐름도, 다이어그램, 포스터, 게시판, 브레인스토밍 등에 사용하기에 뛰어난 업무 및 디자인 도구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앱이지만 비싼 가격이 흠이다. 가격 : 49.99달러



**47. 아이패드용 아트스튜디오(Artstudio for iPad)**

손으로 그리는 그림에 심취한 사람에게 적합한 두 가지 앱 중 하나가 아트스튜디오다(다른 하나는 브러쉬즈). 이 앱에서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몇 가지 유용한 이미지 레이어 옵션이 제공된다. 가격 : 2.99달러 IDGK



## 업무용 아이패드 앱 12선 '이제는 생산성 도구'

Brian Nadel | ComputerWorld

### Deep Dive

애플 아이패드는 판매량 300만 대를 넘어 서며 테블릿 시장 판매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거침없는 성공 가도를 질주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상자에서 꺼낸 상태 그대로의 아이패드는 비즈니스용으로는 별 효용이 없다. 아이패드의 기초적인 워드 프로세서, 이메일 클라이언트, 연락처 디렉터리와 캘린더는 특히 이동 중 업무용으로 이 기기를 사용하려는 사람에게는 한참 모자란다.

다행히 애플의 앱 스토어에는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업무를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12가지 앱을 골라봤다. 이 중에는 회사 네트워킹 인프라를 신속하게 점검해 주는 네트워크 유틸리티(Network Utility)와 같이 한 가지 기능에만 집중하는 앱도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오피스<sup>2</sup> HD(Office<sup>2</sup> HD)와 같이 다방면에 유용한 앱도 있다. 또한 출장 계획을 관리하는 플라이트트랙 프로(FlightTrack Pro)와 같이 이동 근무가 잦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앱도 있다.

### 페이지스(Pages), 넘버즈(Numbers), 키노트(Keynote)

애플의 맥용 아이워크(iWork) 제품군에는 워드 프로세서(페이지스), 스프레드시트(넘버즈), 프리젠테이션(키노트)용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앱 모두 유용하며, 여러 가지 공통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세 앱 모두 8가지 언어를 지원하며, 200단계까지 작업 취소가 가능하다. 최신 워드, 엑셀 및 파워포인트 파일 형식을 불러올 수 있다(저장은 오피스 97 형식으로만 가

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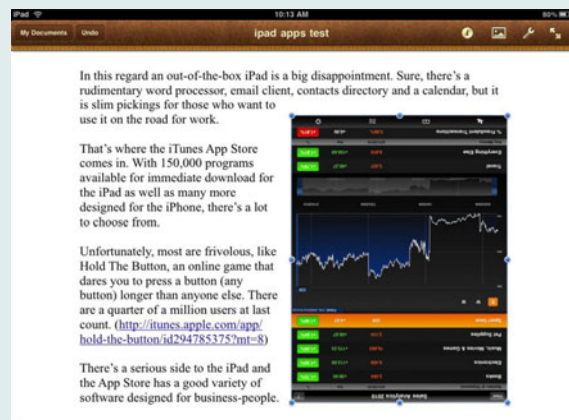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개별적으로만 제공된다. 따라서 맥 노트북이나 다른 애플 시스템에서처럼 단순히 개별 요소를 합쳐놓은 것 이상의 통합이 주는 장점은 살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 미리 작성해둔 텍스트를 프리젠테이션에 추가하려면 아이패드의 홈 버튼을 클릭해서 페이지스를 열고 해당 텍스트를 복사하고 다시 홈 버튼을 두드려서 키노트를 연 다음 원하는 위치에 붙여 넣어야 한다.

어쨌든 외부에서 근무한다면 다양한 문서를 읽고 작성하기 위해 이 3종 앱이 필요하다. 각기 따로 구입하고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럴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 페이지스

페이지스(9.99달러)를 사용하면 매우 정교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문서는 깔끔하게 표시되며, 다양한 표현을 위한 폭넓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여백, 글꼴, 들여쓰기와 같은 서식 옵션을 변경할 수 있고 이미지 주변의 단어 잘림도 조절된다. 16가지의 기본 템플릿을 비롯해 다양한 서식 옵션이 제공되며 숫자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편히 차트나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페이지스는 아이패드를 세





로 놓든 가로로 놓든 디스플레이의 폭에 맞게 자동으로 문서 크기를 조정한다. 이 기능은 복잡한 문서로 작업할 때 도움이 된다.

이것저것 들어간 것이 많은 문서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인내심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문서를 불러오면 화면에 표시될 때까지 몇 초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오피스<sup>2</sup> HD와 같은 다른 앱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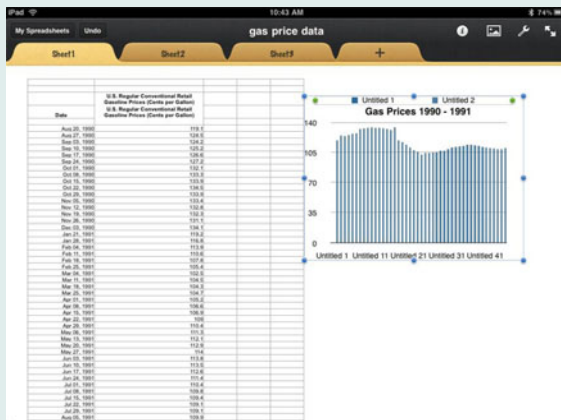
페이지스에서 워드 파일로 작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글꼴도 깔끔하게 대체된다. 그러나 그룹 작업에 유용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페이지스로 이러한 문서를 불러들일 경우 코멘트와 메모는 나오지만 텍스트 강조 효과 없이 맛있게 표시되며 누가 작성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문서는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저장된다(넘버즈, 키노트도 마찬가지).

이미지를 가져와서 크기를 조절하거나 회전하는 작업은 간편하다. 외장 키보드와 관련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필자의 마티어스(Matias) 접이식 키보드는 페이지스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했다.

문서는 애플의 'iWork.com' 사이트에서 공유할 수 있다. 기사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이트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지만 실용 가능할 정도로 안정적이다. 애플은 최근 모바일미(MobileMe) 동기화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

## 넘버즈

넘버즈(9.99달러)는 수치 관련 작업을 위한 탁월



한 도구다. 화면에 하나의 활성 워크시트와 5개의 추가 워크시트에 대한 탭이 배열된다. 오피스<sup>2</sup> HD에 포함된 함수의 두 배 이상인 250가지 함수가 제공된다.

넘버즈에서는 데이터와 사용할 서식을 선택하고 손가락을 갖는 방법으로 9가지 그래프를 만들 수 있고, 다른 모양으로 즉각 변경할 수도 있다. 일관성을 위해 페이지스와 동일한 16가지 애플 템플릿이 사용된다.

## 키노트

사무실을 떠나 비즈니스 출장에 오르는 이유는 대부분 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다. 키노트 앱(9.99달러)을 사용하면 이동 중에 간단한 발표용 화면을 신속하게 만들고, 복잡한 파일을 편집하거나 프리젠테이션을 볼 수 있다.

맥 버전을 사용한다면 인터페이스가 친숙하게 보이겠지만 아이패드용 키노트는 화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이미지를 배치하기 어렵다면 화면을 확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아이패드 자체는 2~3명에게 프리젠테이션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훌륭하지만 대상이 많은 경우에는 프로젝터나 모니터가 필요하다. 키노트를 대형 화면으로 표시하려면 29달러짜리 VGA 어댑터를 구입해야 한다. 참고로 넘버즈와 페이지스에는 이미지를 외부 장치로 전송하는 기능이 없다.

페이지스와 넘버즈는 16개의 테마를 제공하지만



키노트는 12개의 테마를 제공하고, 대신 정교한 이미지 및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더했다. 텍스트나 이미지를 두드려서 내용을 변경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직접 시도해본 결과 청중의 시선을 끌 정도의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10장의 슬라이드로 구성된 프리젠테이션을 만드는 데 약 5분이 소요됐다.

### ●●●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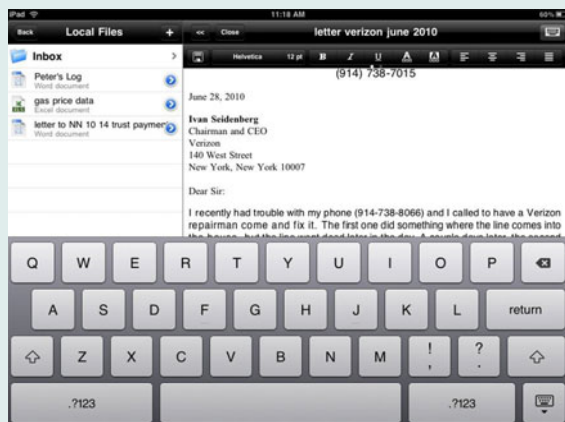
문서를 읽거나 편집하거나 작성해야 할 경우 아이패드에선 페이지스, 넘버즈, 키노트를 능가하는 프로그램은 없다. 다만 세 프로그램이 통합해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

### 오피스<sup>2</sup> HD(Office<sup>2</sup> HD)

바이트(Byte<sup>2</sup>)의 오피스<sup>2</sup> HD(Office<sup>2</sup> HD)를 설치하면 아이패드는 그야말로 문서를 찍어내는 공장 이 된다. 가격은 7.99달러로, 아이워크 프로그램 3종의 1/3에도 못미치면서 아이워크의 2/3에 해당하는 기능을 제공한다(워드 프로세싱과 스프레드시트).

오피스<sup>2</sup> HD는 워드 .DOC 파일과 엑셀 .XLS 파일, 애플 페이지스 및 넘버즈 애플리케이션으로 작성된 문서, 무료 네오오피스(NeoOffice) 제품군에서 작성된 파일과 호환된다. 테스트 결과 오피스<sup>2</sup> HD는 PDF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DOCX 파일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을 문제 없이 처리했다. 문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도 있다.

오피스<sup>2</sup> HD에서는 서식, 여백, 글꼴 및 글자 크



기를 조정하고 문서 내에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으며 이전에 작업한 내용을 100단계까지 취소할 수 있다. 페이지스처럼 각 변경 후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은 없지만 문서를 닫을 때 자동으로 저장해준다.

페이지스와 마찬가지로 오피스<sup>2</sup> HD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이 적용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지만 코멘트가 일반 텍스트로 표시되며, 작성자 확인이 가능한 코멘트를 추가할 수도 없다.

동시에 여러 스프레드시트를 열고 작업할 수 있다. 행 높이와 열 너비는 두드려서 끄는 방법으로 원하는 대로 쉽게 조정이 가능하다. 손가락으로 끄는 동작을 통해 여러 스프레드시트 사이를 편리하게 전환할 수 있다.

오피스<sup>2</sup> HD에는 기본적인 연산부터 본격적인 통계 분석에 이르기까지 112개의 스프레드시트 함수가 포함되어 있다. 넘버즈에 포함된 함수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또한 그래프 생성 기능이 없다는 것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좋은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을 벗어나지 않고도 구글 독스, 애플 모바일미, 아이디스크 또는 Box.net과 같은 온라인 저장소에서 파일을 가져오는 기능이다.

### ●●● 요약 및 결론

오피스<sup>2</sup> HD에서 크게 실망스러운 부분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보고 편집하는 기능의 부재다. 이 단점을 제외하면 기능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다.

### 롬비 프로(Roambi P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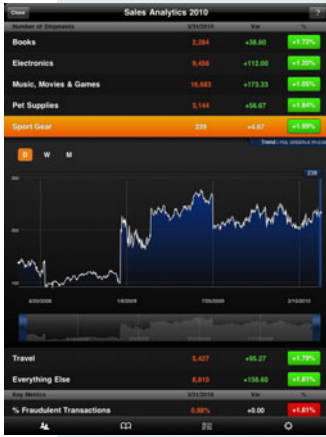
연간 사용료 99달러인 멜모(MeLLmo)의 롬비 프로는 이 기사에서 다루는 아이패드용 앱 중 가장 비싼 앱이지만 회사 운영 상황을 파악하거나 비즈니스 동향을 관찰하려는 경우 이 앱이 딱 맞을 수 있다.

이 앱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디자인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회사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접근해서 여러 수치를 보거나 다양한 그래프로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프로 버전은 .XLS, .CSV, .HTML 및 .DOC을 포함한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한다. 엔터프라이



즈 에디션(롬비 ES3)은 대기업용으로 IBM의 코그노스 애플리케이션, SAP의 CRM과 같은 도구와 연동되며 가격은 50석 라이선스가 795달러다. XLS, CSV 및 HTML 문서만 다룰 수 있는 무료 라이트 버전도 있다.



한달 동안 사용하면서 보니 롬비는 다양한 수치 정보를 아이패드에서 제공하지만 이메일이나 웹 사이트 또는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수치들을 끌어올 수 없었다. 즉, 넘버즈를

비롯한 다른 아이패드 앱에서 이미 열어 놓은 데이터를 롬비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복잡한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에서 모든 포맷을 인식하도록 데이터 필드를 매핑하는 소프트웨어인 롬비 퍼블리셔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

롬비 기술 지원팀의 도움을 받아 필자는 구글 독스 계정의 여러 파일을 사용하여 데이터 흐름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일단 설정된 다음에는 쉽게 업데이트가 가능했다.

롬비는 8가지 그래프를 사용해서 보통 수준의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선형, 대수, 지수 그래픽 기법 외에 뛰어난 최적 곡선 평활화(curve-smoothing) 루틴을 제공한다. 신속하게 각 항목을 조정하면서 즉각 결과를 볼 수 있다.

언제든 작업 중인 그래프의 스크린샷을 동료에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프리젠테이션 또는 보고서로 가져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카덱스(Cardex) 보기다. 카덱스 보기에서는 수십 가지의 데이터 소스(예: 회사의 비즈니스 그룹 또는 판매 분야)로 구성된 “롤로덱스(Rolodex)”를 넘겨가면서 볼 수 있다. 또한 북마킹 기능 덕분에 많은 데이터를 다룰 때에도 건망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 요약 및 결론

롬비 프로는 비싸지만 뛰어난 기능을 생각하면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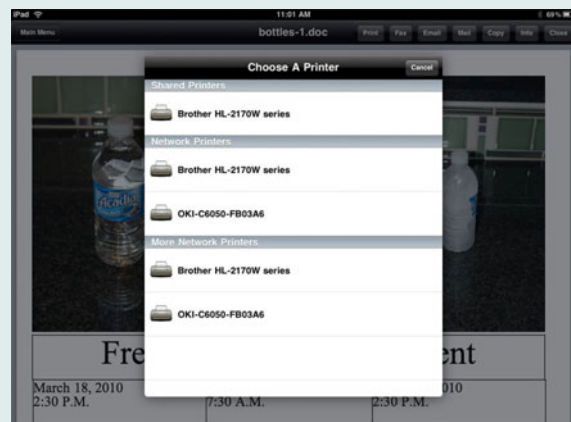
### 아이패드용 팩스 프린트/셰어 프로 (Fax Print & Share Pro for iPad)

아이패드에 없는 것 중 하나는 인쇄 버튼이다. (아이패드의 화면을 아래로 하여 복사기에 넣어 화면을 그대로 인쇄한 사례는 있음) 엔딜리 테크놀로지(Ndili Technologies)의 아이패드용 팩스 프린트/셰어 프로(FPSP, 8.99달러)는 화면의 내용을 출력하는 데 편리하다. 애플의 iOS 4.2 업그레이드에서 기본 인쇄 기능을 제공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괜찮은 선택이라면 FPSP다.

FPSP의 기본 메뉴에서 인쇄할 새 자료를 불러온다. 인쇄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할 문서를 선택하면 된다. .DOC 및 .PDF 문서, .JPG 및 .GIF 이미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파일 형식을 지원한다.

그러나 파일을 인쇄하는 작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각 파일을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인 다음 인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웹 페이지를 인쇄하려면 먼저 프로그램의 다운로더 기능을 사용해서 페이지를 캡처한 다음 주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인쇄해야 한다. 현재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바로 인쇄할 수 있다면 FPSP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FPSP는 라우터를 통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프린터로 직업 페이지를 전송할 수 있다. 필자는 3개의 프린터로 테스트했는데, 2개의 무선 프린터(엡슨 스타일러스 NX510과 브라더 HL-2170W)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했지만 유선을 연결된 오키 데이터 C6050 프린터에서는 컬러 인쇄가 되지 않았다. 엔덜리 측은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하여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수정 중이다.

실제 편지나 엽서도 보낼 수 있다(우편 요금에 맞는 우편 단위를 미리 구입해야 함). 이 서비스를 사용해서 편지를 보내봤더니, 일주일 뒤 흰색 봉투에 담긴 깔끔한 비즈니스 문서가 도착했다.

### ●●● 요약 및 결론

과정은 좀 번거롭지만 업무에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FPSP의 문서 인쇄 기능이 유용할 것이다.

### 아이패드용 포켓 인포메이션 (Pocket Informant for iP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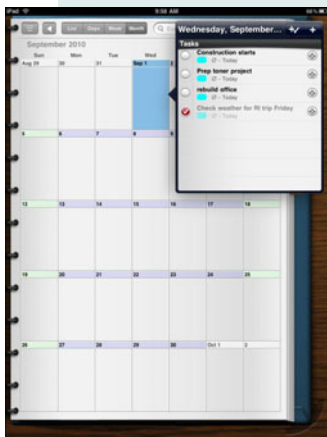
약속에 매번 늦기가 민망한가? 중요한 일을 깜박하는 경우가 많은가? 웹 인포메이션 솔루션(Web

Information Solutions)의 아이패드용 포켓 인포메이션(Pocket Informant for iPad, 12.99달러)을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된 일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전자 비서라고 할 수 있다.

아이패드가 미니멀한 달력과 연락처 기능을 추구하느라 빼먹은 부분을 포켓 인포메이

션은 일정과 작업을 위한 통합 시스템을 통해 보충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예전의 일정 플래너를 연상시키며, 프랭클린 코비(Franklin Covey)의 갯팅 씽즈 던(Getting Things Done) 시스템과 연동된다. 색, 글꼴 크기, 작업의 화면 배열 방식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부분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

화면을 좌우로 쓸어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전환하면서 정보를 볼 수 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은 빈 시간과 예약된 시간이 표시되는 시간 막대다. 이를 통해 손쉽게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간단한 점심 약속이 가능한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글 맵스를 사용해서 여러 곳을 경유하는 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다. GPS가 포함된 3G 버전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포켓 인포메이션이 지도 상에서 현재 위치를 표시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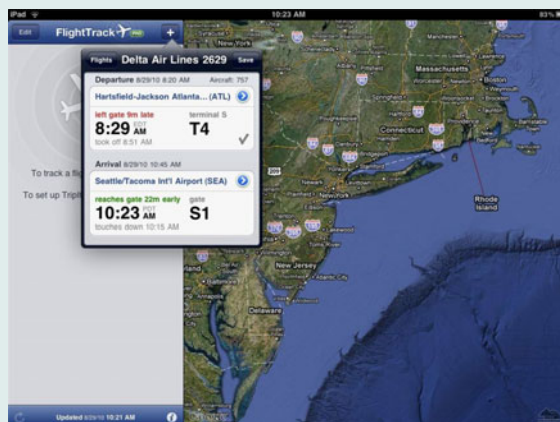
투스두(Toodledo) 및 구글 캘린더에 저장된 일정 정보와 동기화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구글 캘린더의 작업 목록은 동기화되지 않는다. 아웃룩과 동기화하려면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인 웹리즈 데스크톱 싱크(WebIS Desktop Sync)를 다운로드해야 한다(2주 평가기간 후 5달러 유료 버전으로 전환). 현재 회사 측은 OS X 및 익스체인지에 위한 아웃룩 동기화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며, 현재 제공되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외에 다른 언어도 추가할 예정이다.

### ●●● 요약 및 결론

포켓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면 약속 시간에 늦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

### 플라이트트랙 프로(FlightTrack Pro)

쉽지 않은 비즈니스 출장에서 모바일타(Mobiat)의 플라이트트랙 프로(FlightTrack Pro, 9.99달러)를 사용하면 시간에 맞춰 공항에 가고, 계획이 변경되거나 비행편이 취소될 경우 이에 맞추어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앱은 전세계 3,975개 공항, 1,462개 항공사의 도착, 출발 및 지연 정보를 비롯하여 세부적인 출장 계획을 추적한다. (단, 열차, 버스 또는 자동차 여행이 포함된 다중 교통 수단 여행은 지원하지 않음)





먼저 비행 번호를 입력하고 3자리 공항 코드를 입력하거나 도착지 도시를 입력하고 해당 공항을 선택하면 된다.

트립잇(TripIt)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세부 정보를 자동으로 추가해준다. 운항 중인 항공편 및 기상 정보뿐만 아니라, 항공편 상태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공항 안내판 보기(Airport Board View)가 유용하다. 이 기능은 공항의 출발 안내판을 똑같은 모양으로 보여주므로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때 신속하게 알 수 있다.

운항이 취소되어 오도가도 못하게 되더라도 플라이트트랙 프로가 가장 쉬운 대체 항공편을 찾아준다. 플라이트트랙 프로의 모든 정보는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를 통하거나 전통적인 방법인 이메일을 통해 사무실에 있는 동료 또는 출장지에서 만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 ●●●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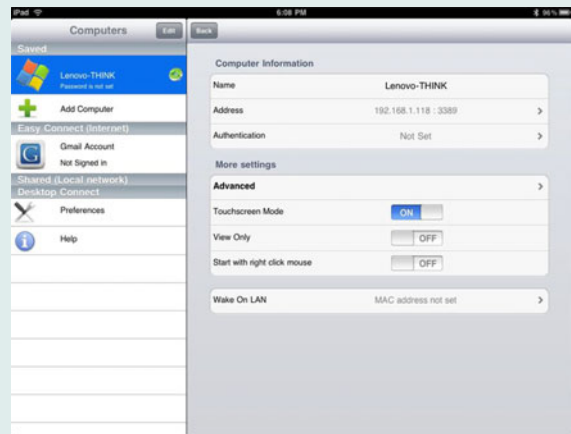
공항에서 무료하게 기다릴 때 아이패드를 흔들면 이 앱이 무작위로 항공편을 추적하는데, 이 놀이가 묘하게 중독성이 있다. 지금 위치에서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다시 현재 위치로 돌아오는 모든 경로를 살펴보다 보면 마치 공항 관제사가 된 듯하다.

### 데스크톱 커넥트(Desktop Connect)

안테시아(Antecsea Inc.)의 데스크톱 커넥트(Desktop Connect, 14.99달러)를 사용하면 사무실 밖에서도 필요한 파일을 볼 수 있다. 이 앱은 윈도우, 맥, 리눅스용으로 제공된다.

데스크톱 커넥트는 호스트 컴퓨터의 제어 권한을 가져와야 하므로 설치가 약간 복잡해서 한 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나 일단 설치되면 사용하기는 쉽다. 이 앱은 암호와 128비트 암호화를 통해 데이터를 보호한다.

먼저 호스트 컴퓨터에서 리눅스, 윈도우 및 OS X용으로 제공되는 베투얼 네트워크 컴퓨팅(VNC)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거나, 윈도우 비스타/윈도우 7 홈 및 스타터 에디션을 제외한 모든 윈도우 버전에서



서 실행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RDP)을 실행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처음 몇 번의 시도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안테시아 기술 지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윈도우 7 데스크톱과 맥 미니에 연결할 수 있었다.

데스크톱 커넥트가 실행되면 아이패드에서 데스크톱 전체가 그대로 복제되며, 아이패드 화면에 맞게 해상도를 자동으로 낮추는 옵션이 제공된다. 버튼 하나만 두드리면 사무실 PC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는 없지만 호스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아이패드에서 보고 스크린샷으로 저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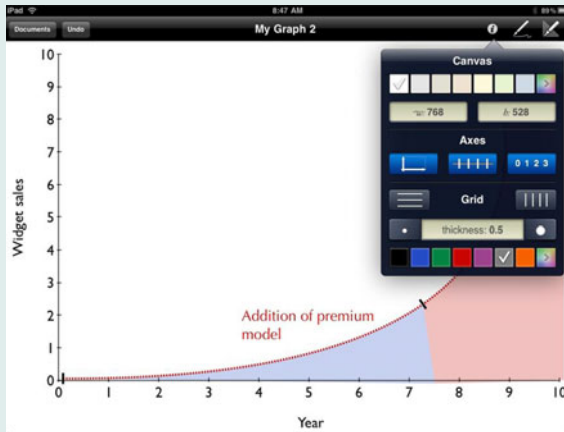
### ●●● 요약 및 결론

다른 원격 제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동작이 약간 느리고 어색하다. 그래도 익숙해지면 사무실에 두고 나온 모든 정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 아이패드용 옴니그래프스케처 (OmniGraphSketcher for iPad)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복잡한 그래프가 필요하다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옴니 그룹(Omni Group)의 아이패드용 옴니그래프스케처(OmniGraphSketcher for iPad, 14.99달러)를 통해 수치를 멋진 인포그래픽으로 변환할 수 있다.

입문자용 자습서와 비디오도 있지만 옴니그래프스케처의 4단계 인터페이스는 필자가 지금까지 본



인터페이스 중 가장 쉬운 편에 속한다.

숫자를 복사해서 붙여 넣거나 빈 그래프를 선택해서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다. 옴니그래프스케처는 선형 그래프, 막대형 그래프, 면적 그래프 등 다양한 형식의 멋진 차트 또는 그래픽으로 숫자를 변환해준다. 사용자가 직접 색, 레이블, 캡션을 추가할 수 있다.

색 구성표는 몬드리안, 호쿠사이와 같은 예술가의 이름을 딴 팔레트로 제공된다. 새로운 색 조합, 그래프 스타일을 만들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조합으로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다.

필자는 가공의 상품에 대한 마케팅 보고서나 영업 프리젠테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럴듯한 판매 그래프 2개를 10분 만에 만들 수 있었다. 아쉽게도 옴니그래프스케처는 정적인 데이터 표현만 가능하다.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그래프도 새 수치를 반영하도록 변경된다. 또는 그래프의 끌어와서 새 모양에 적용할 수 있다. (손가락 그림 그리기와 같은 후자가 그래프를 만들 때 더 효율적이었지만 특히 덜 쾅거리는 전철에 타고 있을 땐 그래프에서 변경할 지점을 정확히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완성된 그래프는 복제하거나 .PDF 및 .JPG 파일로 저장하거나 동료에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프리젠테이션 또는 보고서에 넣을 수 있다. 언제든 완성된 그래프 또는 작업 중인 그래프 갤러리를 둘러볼 수 있으므로 지난 프로젝트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 요약 및 결론

전문적인 수준의 다양한 그래프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하는 옴니그래프스케처로 숫자를 유의미한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다.

## 온코어 타임 마스터(On-Core Time Master)

작업 시간을 청구해야 하는 프리랜서이거나 시간 관리 또는 경비 추적 기능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온코어 소프트웨어(On-Core Software)의 온코어 타임 마스터(On-Core Time Master)를 통해 1분 단위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타임 마스터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대단히 넓은 프로그램이다. 도움말 비디오 및 간결한 설명서가 함께 제공되므로 처음 시작하기도 쉽다.

아이패드의 연락처 앱에서 개별적으로 고객을 입력할 수도 있고 쉽표로 구분된 파일에서 불러올 수도 있다. 활동은 시각 또는 지속 시간별로 설정하거나, 하나의 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작업 시작과 중지를 기록할 수도 있다. 작업 비용 청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고객, 프로젝트, 또는 작업별로 여러 항목을 추적할 수 있다. 결제 단위는 시간, 분, 심지어 초까지 설정 가능하다.

새 작업에 대한 시간 기록을 시작하면 초록색 원이 회전하기 시작한다. 이 상태에서는 아이패드에서 다른 작업을 하는 중에도 시간이 계속 기록된다. 타이머를 중지하거나 재시작하려면 회전하는 원을 두드리면 된다.

타임 마스터에서는 경비가 정산 가능한 경비인지





여부, 영수증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메모할 수 있다. 경비는 작업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한 거리부터 인쇄에 사용한 용지 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항목을 기준으로 추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계산 가능한 모든 항목을 경비로 청구하고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쉽표로 구분된 데이터 파일로 내보낼 수 있다.

미리 설정된 금액 또는 시간 제한에 도달했을 때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하는 기능은 없지만 보관 또는 송장 첨부을 위한 세부적인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온코어는 퀵북스(QuickBooks, 6달러)용 추가 모듈과 고급 송장 제작용 모듈(10달러) 판매한다. 또한 7달러를 지불하면 아이폰과 같은 다른 장치와 동기화하는 기능도 추가할 수 있다.

### ●●● 요약 및 결론

타임 마스터로 하루를 계획하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 네트워크 유틸리티(Network Utility)

회사 네트워크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면 코드퍼시티(Codecapacity)의 무료 앱인 네트워크 유틸리티(Network Utility)를 아이폰에 다운로드하면 된다.

회사 LAN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성능을 테스트하고 네트워크 내부 상황을 보여준다.

원래 아이폰용으로 설계된 네트워크 유틸리티는 아이패드에서는 화면의 절반 크기로 표시되지만 2X 버튼을 눌러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다. 이

렇게 하면 조금 흐릿해지고 일부분이 화면과 딱 맞지 않지만 가독성은 확보된다.

이 소프트웨어에서 네트워크 호스트 주소만 입력하면 와이파이 링크를 통해 회사 LAN에 아이패드를 연결할 수 있다.

데이터 패킷을 서버로 보낸 다음 왕복 시간을 측

정하는 핑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네트워크 유틸리티는 4개의 개별 핑 테스트를 순서대로 수행하고 결과를 표시한다. 그러나 각 테스트의 평균치까지는 계산하지 않는다. 평균 계산 기능이 있다면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거나 혼잡한 네트워크 포트를 감시할 때 유용할 것이다.

네트워크 유틸리티는 지정된 범위 내의 포트를 스캔해서 누가 어떤 포트를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간헐적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후이즈(whois) 쿼리를 실행해서 IP 주소 뒤의 도메인 이름을 확인할 수도 있다. 아이패드의 IP 주소를 표시하는 기능 외에 LAN의 호스트 이름을 파악하고 외부 주소를 찾는 기능도 있다.

단점은 인터넷 연결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간단한 브로드밴드 테스트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이 기능을 위해서는 우클라(Ookla)가 무료로 제공하는 SpeedTest.net 모바일 앱을 사용해야 한다.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다. 네트워크 유틸리티는 무료지만 대신 화면 아래쪽에 작은 광고가 표시된다. 99센트를 내면 광고 없는 프로 버전으로 전환할 수 있다.

### ●●● 요약 및 결론

네트워크 유틸리티는 여러 시설을 돌아다니는 IT 담당자에게 완벽한 프로그램이다. **IDGK**



# KT 추천 Essential 41 iPad Apps in Korea

Deep Dive



**올레유치원**

뽀로로와 뽕뽕이, 코코몽, 재미나라, 야후 꾸러기 등 업계 1위의 유아용 킬러 콘텐츠를 수급해 학습과 놀이를 접목시켰다. 월정액 방식의 프리미엄존과 무료인 프리존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중 월정 5,000~1만원 선의 학습지 콘텐츠가 추가될 예정이다. 개별 앱이라기보다는 유아 포털 형태의 어플 모음이다. 12월 중 출시예정.

**모두 떨어져요**

아이패드의 물리센서를 이용해 어린이에게 ‘중



력’의 원리를 재미있게 이해시켜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공을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볼까요?”, “친구들과 텀블링으로 점프 놀이를 해보세요.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까지 갈 수 있을까요?” 등 중력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아이패드를 위, 아래, 옆으로 움직이며 시연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가격 : 4.99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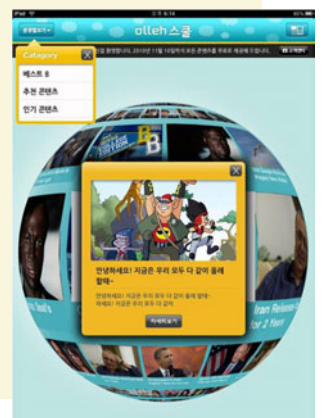
**뽀조**

보고 듣고 만지는 동물탐험대 모험을 통해 다양한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유아용 교육 애플리케이션이다. 학습도중 다양한 동물세계와 관련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가격 : 5.99달러 / 무료



**올레스쿨**

교육과 재미를 결합한 초등학생용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허브로서 학습만화, 상식백과, G러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학부모와 자녀 모두가 즐기며 배우는 에듀테인먼트 우등 콘텐츠! 재미와 학습이 결합된 초등학생용 멀티터치 학습 애플리케이션. 12월 중 출시예정. 가격 : 4,000원/월





## 올레사이언스

중고등 물리, 화학의 주요 실험과 동영상 강의를 아이패드용 대형 화면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자기주도 학습 콘텐츠로 자석을 이용하여 전자기 유도현상, 기타를 치며 발생하는 음파와 관련된 일상생활속의 과학원리를 쉽고 알기 쉽게 제공하는 아이패드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다. 12월 중 출시예정. 가격 : 무료



## JC정철 APP

정철선생의 직강과 정철에서 직접 개발한 강좌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애플리케이션이다. 기초강의부터 고급 실전회화까지 월결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매월 업데이트되는 신규강의가 200여 편에 이른다. 정철영어TV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도 있다.

## 큐브릭 - 메이킹 어 센텐스 (Cubic - Making A Sen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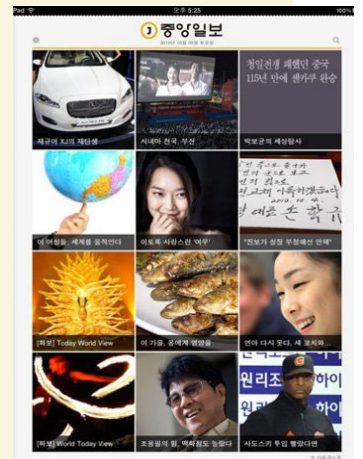
4세에게 7세 유아를 위한 언어 감각 개발교재 애플리케이션으로 중국어와 영어에 대해 각각 9단원 18세트 구성된 콘텐츠가 담겨졌다. 단어와 문장, 스토리로 자연스



럽게 이어지는 구성으로 쉽게 문장의 구조와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 중앙일보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중앙일보의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션. 동영상과 고품질의 사진을 활용해 종이 신문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실제 종이 신문처럼 3단 혹은 4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페이지가 특징적이며, 활자 이외에 기사와 관련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독자의 이해를 높인다. 국내 일간지 중에서는 최초로 나온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션이다. 가격 : 무료



## 매일경제

국내 경제전문 일간지 1위 콘텐츠로 경제뉴스전문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영상, 텍스트,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이패드의 대형 화면에 적합한 뉴스전문 콘텐츠. 가격 : 무료



## 올레메거진

올레메거진은 코스모폴리탄, 골프다이제스트, 행복이 가득한집, 모토타랜드, 아레나 등 국내 프리미엄 콘텐츠를, SNS, 광고, 커머스를 컨버전스한 종합 멀티미디어 매거진으로써 국내 최고 잡지들이 사운드, 동영상 및 VR 이미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interactive 하게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12월 중 출시예정. 가격 : 미정



## 아이패드용 도시락(Dosirak for iPad)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음악 포털 서비스 도시락이 아이패드 특성에 맞게 최적화됐다. 넓은 영역의 플레이리스트와 함께가사 및 앨범 정보를 보여주는 UI 등이 대표적이다. 고해상도의 뮤직비디오가 제공되며 좋아하는 장르별 음악을 자동으로 선곡해주는 라디오 서비스도 지원된다. 이 밖에 연예계 핫뉴스가

## 아이패드용 G마켓(Gmarket for iPad)



자가 기준에 선택한 콘텐츠만 선별적으로 노출할 수도 있다.

G마켓의 서비스에서 쇼핑과 관련있는 핵심 서비스를 아이패드용으로 구성한 쇼핑앱이다. 상품검색과 베스트셀러 검색, 특가검색, 주문/배송 리스트 및 현황, 내쿠폰함보기, 상품 상세보기, 상품평 보기, 상품정보 SNS 공유하기, 장바구니 담기, 주문 및 결제하기 등의 기능을 갖췄다. 사용

## IBK 스마트 뱅킹



IBK 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예금조회 및 이체, 펀드, 대출업무 등의 서비스를 구현한다. 카메라를 통한 2D 바코드 인식으로 공과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아이패드의 넓은 화면을 고려해 서비스 메뉴가 전면 노출되고 있으며 다

양한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다.

## 별자리 (별지도 3D+)

아이폰에서 인기가 높았던 별자리 애플리케이션이 아이패드 버전으로도 나왔다. 9.7인치 크기의 큰 스크린과 3D를 활용해 가시성이 높아졌다. 사용자의 위치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하늘에 보이는 성운과 별자리, 행성, 은하 등을 표시해 주고, 별자리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다. 알고 싶은 별자리를 검색해서 볼 수도 있다. 가격 : 1.99달러



## 북카페

KT 쿡북카페에서 구매한 전자책을 아이패드로 다운로드 받아 읽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앱이다. 구매 목록을 관리, 검색, 편집할 수 있는 내서재 기능과 밝기와 폰트, 스크랩 등을 구현하는 뷰어 설정 기능을 갖췄다. 소장 도서량은 5만권이며, 경제와 시사, 재테크, 패션,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여행 등의 분야별 대표 잡지들을 매월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 인터파크 e북 비스킷 HD

6만 여권의 도서를 보유한 인터파크의 e북 비스킷을 아이패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앱이다. 책장 넘기기, 가로보기, 책갈피와 폰트 조정 등의 기본적인 리더 기능과 함께 곧바로 검색, 결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다운로드 받은 책을 저장하고 정리할 수 있는 서재 기능도 제공된다.





## YES24

eBook 조회, 검색, 구매, 읽기까지 한번에 가능하고 신간 및 베스트셀러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최신 인기 도서 무료로 볼 수 있는 eBook 애플리케이션. 국내 유명 작가가 매일 연재하는 무료 연재 소설 분야별, 주제별로 보는 테마 기획 시리즈 등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혜택을 즐길 수 있다. 가격 : 무료



된 혜택을 즐길 수 있다. 가격 : 무료

## 2XL 슈퍼크로스 HD

최대 4인까지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 오프로드 오토바이 레이싱 게임이다. 화려한 그래픽과 현실감있는 3D 물리 엔진, 실감나는 3D 입체 음향 및 엔진 소리, 부분 효과 및 뛰어난 음영 등 사실감이 넘치는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TV OUT 기능을 지원해서 별도의 컴퍼넌트 케이블을 연결하면 TV나 모니터 등 더 큰 화면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다. 멀티플레이 등 몇 가지 기능이 빠져있는 라이트 버전을 무료로 이용해 볼 수도 있다. 가격 : 4.99달러



## 베이스볼 슈퍼스타 2010 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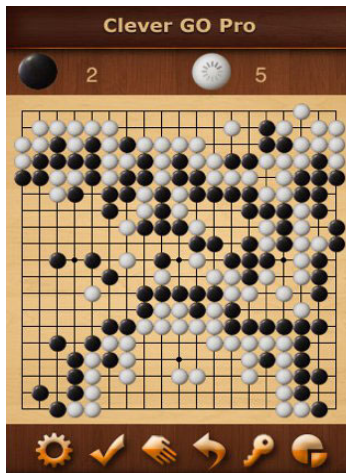
누적 1,200만 번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프로야구 시리즈의 아이패드용 게임이다. 아이패드의 기기 특성을 살려 UI 및 터치 컨트롤을 최적화했으며 HD, 수준의 높은 그래픽 화질을 제공한다. 친선모드와 나만의 리그, 시즌모드, 홈런모드, 미션모드, 매치플레이 등 6가지 모드를 즐길 수 있다. 가격 : 4.99달러



## 아이건슈터(i-Gun Shooter)

아이폰(아이팟 터치)과 아이패드가 서로 무선으로 연동하는 신개념 멀티플레이어 사격게임이다. 아이패드는 스크린으로, 아이폰(아이팟 터치)은 컨트롤러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상에서 최대 4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블루투스 무선 통신을 통해 즐길 수 있다. 가격 : 2.99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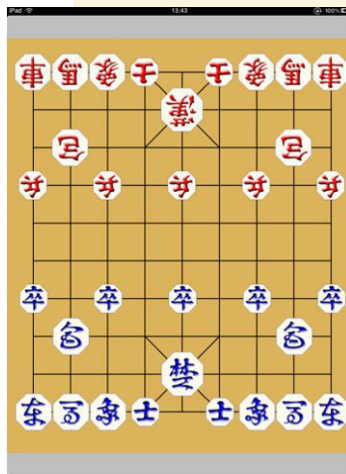




## Clever 바둑

세계 컴퓨터 바둑 선수권 대회 우승 AI 엔진에 기반한 바둑 프로그램이다. 사용자가 제일 높은 레벨을 선택해서 이기는 경우, 대국을 분석하여 사고엔진을 갱신하는 자체학습 기능이 탑재됐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기면 이

길수록 똑똑해지는 바둑 애플리케이션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을 지원한다. 가격 : 1.99달러



## 장기

장기를 아이패드에서 할 수 있도록 구현된 애플리케이션. 애플의 게임센터와 연결되어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과 대국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보드게임의 특징 상 화면이 더 큰 아이패드에서 즐기는 것이 더 좋다. 가격 : 무료

## 오목 (Omok)

### Simply Gomoku

바둑판을 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오목을 아이패드에서 즐겨보자. 컴퓨터와 대결을 할 수도 있고, 친구와 대결할 수도 있다. 아이패드 버전에서는 승/패 통계도 내 주어, 실력이 상승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격 : 무료

## 대우증권

대우증권 SmartNEO는 주식거래를 위한 주문, 실시간 시세, 계좌잔고, 다양한 투자정보를 보다 편



리하게 제공하는 트레이딩 서비스이다. 대우증권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홈페이지에서 준고객으로 등록하면 시세 및 투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두면, PC 보다 더 간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 : 무료

## 신영증권 아이패드용 스마트트리(SmarTree for iP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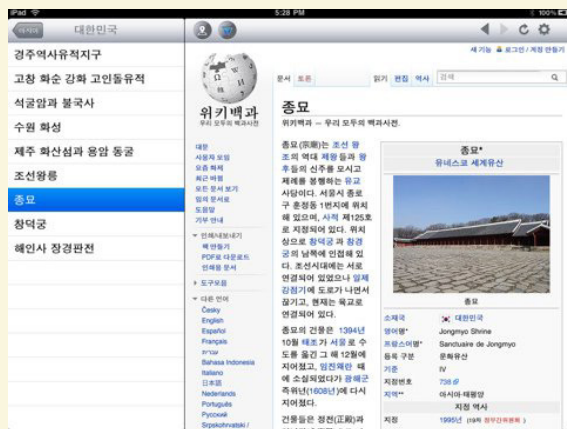
쉽고 빠른 주식거래는 물론 신영증권에서 제공하는 최신 금융투자상품정보와 리서치센터의 발간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조회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이메일 등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다. 한국어와 영어로 지원되며, 쉬운 디자인이 특징이다. 가격 : 무료



## 세계유산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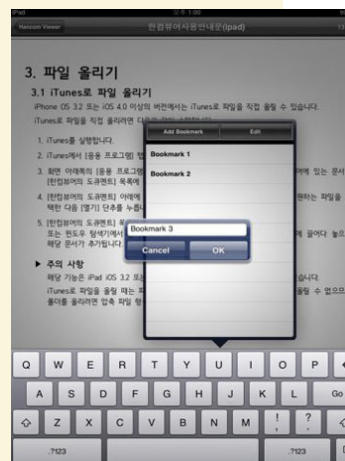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유산 목록의 각 항목을 구글 지도 정보를 통해서 위성 사진으로 볼 수 있고, 동시에 위키피디아에 등록된 정보도 열람할 수 있는 아이패드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다.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은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고, 인접 위치의 지형도 볼 수 있다. 세계 유산 정보가 한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영어 정보를 대신 표시해 준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지원한다. 가격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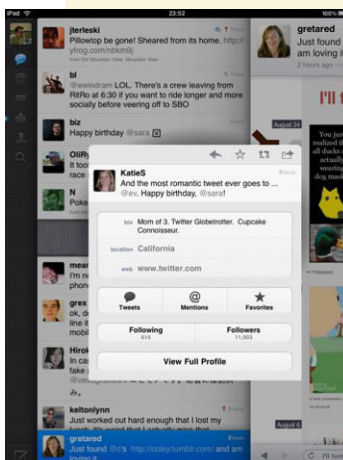


## 한컴오피스 뷰어

한글97부터 2010까지 모든 한글(HWP) 문서를 볼 수 있는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션이다. 문서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름바꾸기, 폴더변경, 이메일로 전송 등 파일관리나 내려두기, 복사 등 문서뷰어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파일을 올릴 때는 아이튠즈를 이용할 수도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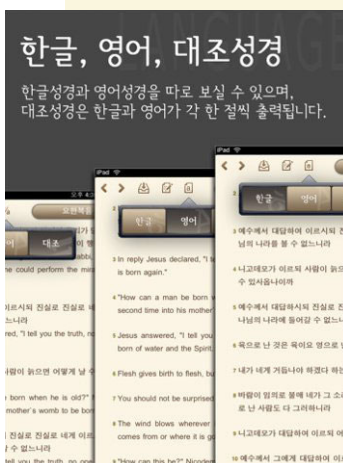
고, WebDAV나 ThinkFree On-Line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다. HWP 파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피스 문서 및 그림 파일을 볼 수 있다. 가격 : 무료



## 트위터

트위터의 공식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션. 텍스트에 집중된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과는 다르게 멀티미디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터페이스가 특징이다. 개편된 트위터 웹 UI와 비슷하게 트윗을 터치하면 포함된 사진이나 유튜브 영상 등을 다른 페이지를

열 필요 없이 바로 볼 수 있다. 가격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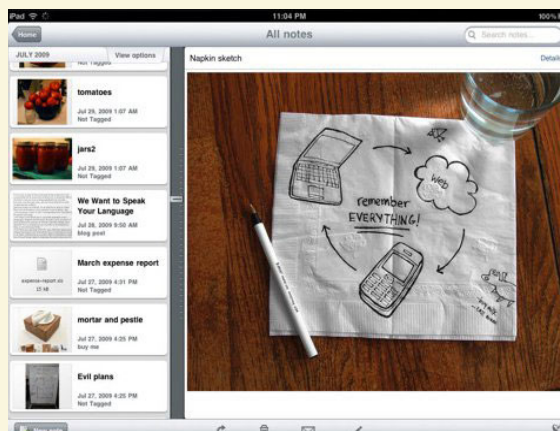


## NIV 한영성경 HD

아이패드전용 한글 개역개정판 성경이다. 한글성경뿐만 아니라 영어성경(NIV)도 볼 수 있으며, 한글과 영어를 한절씩 대조해서 보는 기능도 제공한다. 북마크, 검색 등을 할 수 있으며, 데이터내장형이어서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본문을 보다가 메모를 바로 작성할 수 있으며, 메모관리메뉴에서 따로 보관된 메모를 관리 및 삭제할 수 있다. 가격 : 7.99달러

## 에버노트



아이폰에서 대표적인 생산성 애플리케이션으로 큰 인기를 모았던 에버노트(Evernote)의 아이패드 버전이다. 생활 속에서 발견된 아이디어를 노트, 사진, 녹음 등으로 기록하고, 즉시 맥이나 윈도우 데스크톱에 동기화해서 볼 수 있다.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MUST HAVE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이다. 가격 : 무료

## 아이패드용 기업솔루션

아이패드가 지난 4월 처음으로 출현했을 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 신기한 엔터테인먼트 기기가 기업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아무도, 심지어 애플까지도 기업에서의 아이패드 채택이 지금까지 급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애플 CEO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애플이 아이패드에 대해 별다른 기업 공약을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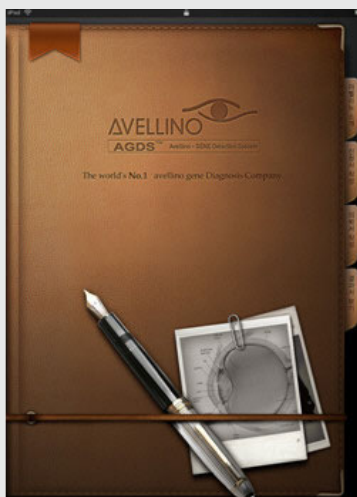
애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재 포천 500대 기업의 65% 이상이 아이패드를 배치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판매된 전자기기'라는 타이틀 뒤에는 이렇듯 기업에서의 성공이 한뼘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서 이렇듯 아이패드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배경은 역시 생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탁월한 폼팩터를 기반으로 기업용 가능성이 엿보이자 이 시장을 노린 애플리케이션이 출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시장이 확대되는 선순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아이패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기업용 전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해본다.

### AGDS 아이패드

안과 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업체인 아벨리노에서 온라인 상의 콘텐츠를 아이패드 기기 특성에 맞게 최적화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아벨리노 각막이상증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공하며 AGDS 유전자 검사 신청을 위한 온라인 신청서도 포함하고 있다. 검사 이후에는 AGDS 검사 결과를 제공해

주는 기능도 갖췄다.



### 아이패드용 모바일 병원 (Mobile Hospital for iPad)

병원의 의료진이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기존의 시스템(EMR 또는 OCS)과 연동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환자의 상세 정보, 처방 내역 조회, 검사 결과 조회, 수술 정보 조회 등으로 구성됐다.



### 인테리어사업용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Tostem)

인테리어 소재, 색상, 조명등의 다양한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테리어 효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일본의 Tostem에서

적용하여 많은 고객방문 및 영업실적을 거두고 있다.



### 보험사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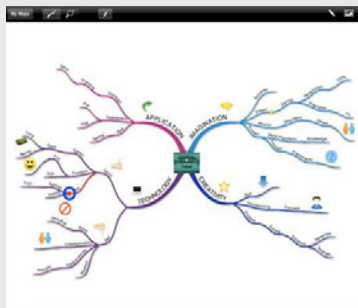
#### (Insurance for iPad)

아이패드를 활용해 보험사가 철저한 고객관리와 편리한 보험료 계산, 업무 효율성 확대를 꾀할 수 있도록 한 애플리케이션이다. 고객 기념일을 관리하고 고객 성향을 분석 및 등록하는 것에서부터 약속 장소를 쉽게 확인하기 위한 GPS 위치확인 기능, 사내 SNS 및 신입 사원 교육 채널 등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 업무용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 (iMindMap )

마인드맵을 이미지로 쉽게 보여줌으로써 프리젠테이션, 브레인스토밍, 계획수립, 의사결정, 문제해결, 아이디어 구제화 등에 활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고객상담, 직장내 회의등에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가격 : \$32.99



## 자동차 딜러용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Mercedes Benz )

세계적 명차 벤츠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동차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상담, 자동차 시세, 금융프로그램소개 등 자동차 딜러가 활용함으로써 프리미엄 가치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가격 : 무료



## 의류매장용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 (New Yorker)

의류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이 상하의 의상을 바꿔가며 다양한 코디를 연출하여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조합을 제공한다. 아울러 매장의 홍보 카달로그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비용절감효

과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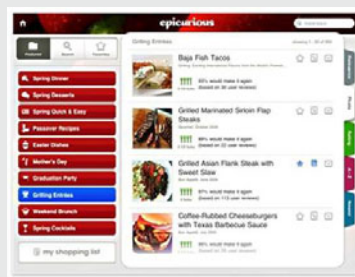
## 부동산중계업용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Realestate)

부동산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매물정보(구조, 위치, 사진, 가격 등)를 보여주며 상담하는 솔루션으로 일본 및 미국 부동산 중계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요식업계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메뉴판)

미국, 일본, 한국의 고급 레스토랑, 음식점에서 음식의 이미지, 가격,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문으로 연계하는 메뉴판 형태의 솔루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객에게 새



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여 업계의 경쟁력은 향상된다.

## 호텔업계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호텔)

고객들에게 룸 인스펙션, 호텔 가이드를 아이패드를 통해 제공하고 고객의 신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한다.



## 공장시스템관리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공장)

복잡한 시스템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입력하며 관리시스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적화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일본의 상하수도시스템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IDGK





# Global IT Standard IDG

PC World, Computer World, CIO 등으로 잘 알려진 IDG는 90여 개국에서 180여 미디어를 발행하는 글로벌 테크놀로지 미디어로, 전 세계에 1억 4,000만 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서치, 컨퍼런스, 이벤트 등 다양한 테크놀로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깊이 있는 분석과 신뢰성 있는 정보
- 글로벌 IT 트렌드를 신속하게 전달
- IT 분야 핫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 IT 의사결정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디어

IDG Global Media



한국IDG(주)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108번지 창화빌딩 4층 100-161

Tel : 02-558-6950 Fax : 02-558-6955

[www.idg.co.kr](http://www.idg.co.kr) [twitter.com/idgkr](https://twitter.com/idgkr) [facebook.com/IDGKorea](https://facebook.com/IDGKorea) [blog.naver.com/idg\\_korea](https://blog.naver.com/idg_korea)

온라인 광고 & 컨퍼런스 스폰서 문의 : 사업1팀 김성일팀장 [sungil\\_kim@idg.co.kr](mailto:sungil_kim@idg.co.kr) / 사업2팀 이포원팀장 [tony\\_lee@idg.co.kr](mailto:tony_lee@idg.co.kr)